

대학 무용과 내 예술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과정 분석

나경아* · 한석진**

I. 서론	IV. 결론 및 제언
II.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
III. 무용과 내 예술 기업가정신 관련 교과 목 분석	Abstract

I. 서론

대학교육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준비시켜 사회로 배출하기 위해 전공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무용분야의 경우 아동기 전후에 이미 전문적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편이며,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오랜 수련을 통해 전문무용가로서의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무용가로서 성장해 온 이들은 공연예술가로서 진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곤 한다. 예술적 기량 면에서 전문가로 성장한 대학 전공자들은 졸업 후 공연예술가로서의 삶을 꿈꾸지만, 실제로 사회에 진출한 이후 예상치 못한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강한 신체훈련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무용 활동의 특성 때문에 은퇴시기가 빠른 편이어서 직업 전향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4대 보험 등록이 가능한 무용단체는 국공립 한국무용단 19개,¹⁾ 국공립 발레단 2개,²⁾ 사립발레단 2개,³⁾ 시립 현대무용단 1개⁴⁾만이 존재한다. 매년 2000여명의 무용전공자들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무용계에서 창작, 공연을 하는 대다수가 독립무용가,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013년 전문무용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1476명의 무용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15.1%만이 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었다.⁵⁾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무용분야 전문인력 681명 중 약 38%가 부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75% 정도가 무용관련분야, 15%정도가 문화예술분야에서 다른 일자리를

* 주저자,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 부교수

** 교신저자, 서울예술대학교 외래강사, jinnysjhan@gmail.com

1) 국립무용단, 국립국악원무용단, 남도국악원무용단, 부산국악원무용단, 강원도립무용단, 경기도립무용단, 전북도립무용단, 제주도립무용단, 서울시무용단, 부산시립무용단, 대전시립무용단, 목포시립무용단, 인천시립무용단, 창원시립무용단, 천안시립무용단, 청주시립무용단, 익산시립무용단, 울산시립무용단, 구미시립무용단.

2) 국립발레단, 광주시립발레단.

3) 유니버설 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

4) 대구시립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의 경우 정단원이 존재하지 않음.

5)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13), 『전문무용수 실태조사』(서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보유하고 있었다.⁶⁾ 1인 기업, 프리랜서 무용가들은 공연활동만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국가 예술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 이후 국가의 예술지원정책이 활성화되어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예술가들의 기획력 부족과 관객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지원금 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자생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무용전공자의 과잉 배출, 은퇴시기가 빠른 무용수의 직업적 특수성, 극히 제한된 수의 무용단 정규직 입단, 지원금에 대한 의존성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때, 대학교육에서 무용예술가로서 전공 능력뿐 아니라 무용계를 둘러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기획, 제작, 홍보, 유통,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용 전공인들이 사회적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대학교육과정에서 무용과 학생들에게 예술 생산 활동을 조직화하고 스스로 제작활동에 가치를 부여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예술가의 역량 안에 사회활동에 필요한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마케팅과 홍보능력과 예술창작 능력을 겸비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예술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예술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영자로서 자질로 문화 기업가정신 또는 예술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⁷⁾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예술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유일하게 공예분야에서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을 다룬바 있다.⁸⁾ 기업가정신 개념을 다루진 않지만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기획전문인력의 직무 분석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시한 이병준의 연구⁹⁾와 시각예술 분야에서 기획인력의 개념 및 배출 현황,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을 다룬 김혜인의 연구¹⁰⁾가 있다. 무용분야에서는 교육과정 속 예술경영 교육과정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¹¹⁾ 위의 선행연구는 무용예술가 외에 다른 일자리 진로로서 전문무용경영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였다면, 본 연구는 예술 기업가정신은 전문무용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자질에 한정되지 않으며 무용예술가로서 현장에서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으로 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다른 시각을 지닌다.

해외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예술가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고등교육 내 교과과정으로 예술 기업가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¹²⁾ 예술의 상업화에 대한

6) 황준욱(2005), 『무용 전문인력 형성구조 분석과 지원방안 연구』(서울: 한국노동연구원, 문화관광부).
 7) 박신의(2011), 문화기업가정신의 역사와 현재,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학술대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pp.13-33; 구문모, 이현숙(2012), 공연예술 기업의 지적 자본, 기업가적 지향성과 기업 성과의 관계, 『문화정책논총』 26(1), pp.6-29.
 8) 차희숙(2012), 정부정책과 대학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식에 미치는 영향: 공예분야를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9) 이병준(2005), 문화예술교육 기획전문인력의 직업적 전문성 연구: 직무분석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8, pp.21-48.
 10) 김혜인(2013), 문화예술 기획인력의 개념과 인력양성 활성화 방안: 시각예술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8(4), pp.23-45.
 11) 강소정(2012), 국내 대학 예술경영 교육 현황 연구: 무용학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조영인(2012), 융합적 무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대학 무용학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전선영(2012), 무용계 활성화를 위한 예술경영교육도입 방안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최윤선(2012), 시장중심 무용학과 교과과정 모형 개발 제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 pp.254-264.
 12) G. D. Beckman(2007), "Adventuring" Arts Entrepreneurship Curricula in Higher Education: An Examination of Present Efforts, Obstacles, and Best Practices,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37(2), pp.87-112; R. Brown(2004), *Performing Arts Entrepreneurship*(Lancaster: PALATINE); S. Burns (2007), *Mapping Dance Entrepreneurship and Professional Practice in Dance Higher Education*(Lancaster: PALATINE); J. S. Roberts(2013), Infusing Entrepreneurship within Non-Business Disciplines: Preparing

거부감과 자기만족적 예술 활동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수용하는 예술가들의 태도, 그리고 예술교육자들의 기존 순수예술 미학을 추구하는 경향과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한 학생들의 환상은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 교육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하였다.¹³⁾

무용가들이 자신의 예술 활동을 통해 명예, 부와 같은 사회적 성공을 꿈꾸고, 기업인처럼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수익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봐야 할 것인가? 상업공연(commercial theater), 쇼 비즈니스(show business)에 예술가들의 참여가 활발히 지속되어 온 서양의 무용계에서는 대중적인 공연활동에 참여하여 공연의 질을 높이고, 무용가들의 사회적 활동의 장을 넓히려는 노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술가들이 대중들의 취향을 맞추어 그들을 겨냥한 예술작품 활동으로 인기와 부를 누리다면 이들에 대해 상업주의에 물든 속물로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의 이유는 단지 대중과 가까이 하거나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술이 추구하는 이상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창조적 활동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사회 속에서도 순수예술활동 운영에서 기업가형 예술 활동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좀 더 다양한 방향으로의 사회 진출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술가들의 사회활동의 가치는 단순히 작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전통적인 관념을 넘어서는 다원화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다루는 연구내용은 첫째, 예술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적 정의이다. 둘째, 게리 베크만(G. Beckman) 이론을 바탕으로 한 예술 기업가정신의 맥락형 교육과정을 제시한다. 셋째, 국내 36개의 대학 내 무용과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일람표를 바탕으로 예술 기업가정신을 반영한 학부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예술 기업가정신 관련 문헌자료 및 무용과의 교육과정 선행연구를 조사하는 동시에 무용과 내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현황 및 도입 배경, 한계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예술 기업가정신(Arts Entrepreneurship)에 대한 정의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서비스 활동, 무형의 생산물, 콘텐츠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은 기업이나 국가의 성장을 이루게 하였으며, 생산 경제에서 소비 경제로, 산업 경제에서 창조 경제로 변화하면서 문화예술산업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문화예술산업의 발전 및 사회적 관심 증가는 기존의 예술분야에서 행해졌던 직관과 관습에 의한 경영에서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경영 형태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관객 연구와 경영 활성화를 통해 예술 활동의 성공을 구현해 줄 예술경영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예술경영

Artists and Others for Self-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Artivate: A Journal of Entrepreneurship in the Arts* 1(2), pp.53-63.

13) G. D. Beckman(2007), pp. 93-95; J. S. Roberts(2013), pp. 53-54.

전공이 신설된 후, 1995년 학부과정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경영 전공을 선발하였다. 그 이후로 대학교 학·석사 과정에 경쟁적으로 예술경영 관련학과를 개설하였고, 2013년 학부과정으로는 19개 대학, 대학원과정으로는 34개의 학교에서 예술경영 혹은 문화콘텐츠, 엔터테인먼트경영, 문화예술경영, 문화예술행정, 공연예술경영 등의 명칭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¹⁴⁾ 대학교 내 예술경영 관련 개설학과의 폭발적인 증가는 문화예술경영 인력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전문예술경영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 내 교육과정으로의 설립으로 이어졌던 반면, 상대적으로 기업가적 지향성을 지닌 예술가 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먼저, 예술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기업가란 사업을 조직,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변화에 주시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즉, 혁신을 추구하고 기회를 지향하며, 넓은 세계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위험, 불확실성, 복잡성을 지니더라도 그것이 가치를 창출한다고 판단한다면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을 기업가라고 부르며, 기업가정신이란 그들의 지식이 아닌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지칭한다.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와 산업 성장의 지속적 동력원 역할을 한다고 여겨진다.¹⁵⁾ 2000년대 이후 해외의 경우 창조산업 혹은 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예술가의 기업가적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¹⁶⁾ 그 중, 랄프 브라운(R. Brown)은 공연예술분야에서 예술가의 기업가정신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에 관하여 심도있게 다루었다.

기업가로서 예술가(artist-entrepreneurs)는 예술가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예술가가 그들의 창작활동에 매진하더라도, 예술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수익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업적 환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는 더 많은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서, 상업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를 위한 제작, 단체를 준비하고 경영계획을 세우며 저작권 및 계약상 문제를 이해하는 등의 그들의 작품을 공연하고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¹⁷⁾

브라운에 따르면, 공연예술 분야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혹은 자영기업 형태, 독립예술가, 혹은 프리랜서 형태의 직업군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술가는 사회의 변화를 읽어내고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창작품을 제작하고 이를 시장에 유통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것까지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예술가는 기업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14) 송혁규(2014), 국내 예술경영학 분야의 학부 및 석사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5) D. B. Audretsch and R. Thurik(2001), *Linking Entrepreneurship to Growth*(Paris: OECD).

16) Y. Kamara(2005), *Key to successful cultural enterpris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Paris: UNESCO); M. Aggestam(2007), *Art-Entrepreneurship in the Scandinavian Music Industry*, In C. Henry (ed.), *Entrepreneurship in the Creative Industrie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pp.30-53; A. de Bruin(2007), *Building the film industry in New Zealand: an entrepreneurship continuum*, In C. Henry (ed.), *Entrepreneurship in the Creative Industrie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pp.87-106.

17) R. Brown(2004), p.6.

위해서는 기업가적 지향성이 요구된다.

예술 기업가정신을 이해할 때, 다른 산업분야에서의 일반적 기업가정신과 예술 기업가정신은 차이점이 지니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예술가들은 보통 협업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작품을 제작하고 유통한다. 따라서 예술가로서 독자성이 있는 동시에 협업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예술 기업가는 수익 창출이 아닌 혁신적, 창조적 욕구에 따라 활동한다. 시장을 확보한 후 작품을 창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창작 후에 시장을 찾아가는 형식이다. 따라서 예술 기업가는 시장과 그것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¹⁸⁾

수잔 번스(S. Burns)는 이러한 예술 기업가정신을 반영하여, 창조적 예술가로서 무용인에게 필요한 예술 기업가적 능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¹⁹⁾ 첫째, 창조적 독립성과 협업능력의 균형을 잡는 능력. 둘째, 시장 내에서 예술적 진실성을 지키는 능력. 셋째, 자기 관리 능력. 넷째, 기술관리를 통해 재정적 여유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다섯째, 창조적이고 상상력을 활용한 문제해결 능력. 다섯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 여섯째, 능동적으로, 실용적이며,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능력이다.

2.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

그렇다면 무용인에게 필요한 예술 기업가적 능력은 어떻게 교육될 수 있으며, 교육과정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미국의 예술 기업가정신 전문가 게리 베크만(G. D. Beckman)은 자국 내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설립 현황 및 교육방식, 구조적 어려움, 좋은 실천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모형을 제시했다.²⁰⁾ 베크만의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의 이론적 모형은 미국적 상황에 맞춰져 있으며, 예술 전반에 걸친 논의에서 무용 예술과 무용 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교 무용과 내 예술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과정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베크만에 의하면, 기업가정신은 전통적 예술가 일자리 현실에 대한 대안인 동시에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및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기존의 직무 역량 개발 활동과는 차이점을 지닌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예술가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 예술표현을 언어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워크숍은 전문성 개발 활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술을 시장에 유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습득하는 경우,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볼 수 있다.²¹⁾ 즉, 창작품, 예술교육과 같은 예술계의 잠재적 가치를 지닌 것을 개발, 공급, 이익 창출하는 창조적, 혁신적 방식을 훈련하는 것이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새로운 벤처기업 창업(New Venture Creation)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영리사업을 시작하여 벤처기업으로 키우고 이익을 얻고 파는 전반의 과정을 배우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계와 경영 기술 습득과 같은 교육을 통해 벤처기업의 설립하고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 또 다른 방향은 학생을 예술계 전문직으로 이행(transitioning)하는 것

18) Ibid.,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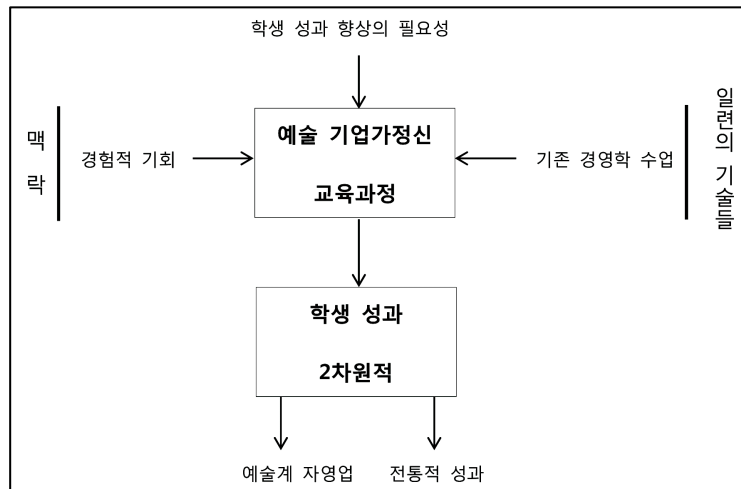
19) S. Burns(2007), p.7.

20) G. D. Beckman(2007).

21) Ibid., p.89.

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영리/비영리 안목, 창의력 교육, 기회 포착과 같은 예술가로 몸담고 있는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친다. 혁신 발전, 기업가의 행동, 예술문화, 지적 기술의 맥락적 통합과 같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예술계 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방향의 교육과정이든, 단순히 기술만을 훈련시키는 비즈니스형(business-based) 교육모형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맥락형(context-based) 교육모형이어야 한다고 베크만은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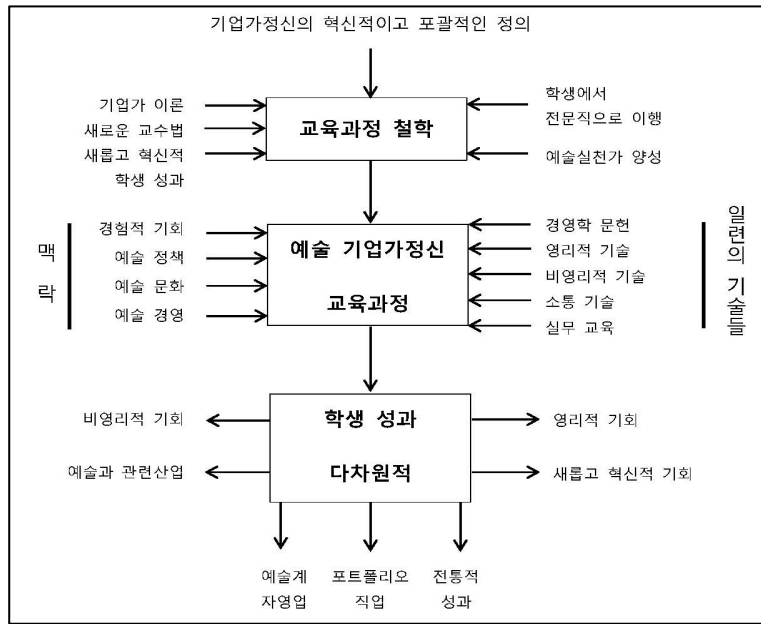
비즈니스형 교육모형(그림 1)은 주된 목표가 경영 지식을 예술전공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벤처 기업 창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인턴십 형태의 실습경험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기업가정신교육과 관계없이 전통적 예술가의 길로 건너, 이전에 선행되었던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와서 개인 스튜디오를 오픈, 예술작품을 판매하는 등의 자영업 형태로 활동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림 1〉 예술 기업가정신을 위한 비즈니스형 교육과정²²⁾

맥락형 교육모형(그림 2)의 경우, 단순히 경영학의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전공학생들이 활동할 현장의 경제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직업적 예술 환경에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이 교육모형은 넓은 의미의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기업가적 이론을 통합하여 예술실천가로서 새롭고 혁신적인 결과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비즈니스형 교육모형과 마찬가지로, 경영학적 지식과 마인드를 습득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기술을 예술행정, 예술문화, 예술경영, 실습기회를 통해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한다. 그 결과, 학생들의 사회진출 방향은 2차원적이 아닌 다차원 방향으로 제시된다. 예술가의 길로 나아가더라도, 경영자적 지식과 마인드를 바탕으로 자신의 예술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고안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창작활동 뿐만 아니라 복수직업 형태를 지니는 포트폴리오 직업군, 예술계 자영업자, 영리 또는 비영리 기업가, 예술과 관련 분야 취업, 새로운 분야 개척과 같은 다양한 진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22) Ibid., p.97.



〈그림 2〉 예술 기업가정신을 위한 맥락형 교육과정²³⁾

무용전공자를 위한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번스는 예술 기업가가 되기 위한 기술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²⁴⁾ 자기관리, 수용, 창조적 문제 해결, 소통 기술, 절충 기술, 네트워크 기술, 의사 결정, 문화예술행정과 인프라에 대한 지식, 무용 관련 에이전시에 대한 지식, 사업 기획, 자기소개서 및 제안서 작성, 구직 및 오디션 관련 기술, 마케팅 및 홍보, 법률 제도, 재무, 채용마련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수용, 리스크 관리, 순발력, 다중 작업, 협업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술 기업가정신과 연관된 분야이다. 번스는 무용과 수업 내에서 예술가로서 전문적 역량 강화가 가장 우선 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와 같은 능력 계발은 독립된 교과목으로 교육될 수도 있지만, 기존의 교과목 내에서 수용, 흡수되어 다루어질 수 있는 분야라고 말한다. 또한, 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문예술가와의 작업하는 현장 경험, 지역 문화예술단체에서의 실무 경험 역시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III. 무용과 내 예술 기업가정신 관련 교과목 분석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국내의 많은 대학교에서 예술경영학 또는 유사관련 학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용전공 학생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예술경영학 수업을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신청가능하다. 하지만, 경영적 지식과 정신 소양은 전문예술경영인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교육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예술가가 전문경영인에게 기획, 제작, 홍보, 유통에 관한 문제를 일임한 채, 온전히 예

23) Ibid., p.98.

24) S, Burns(2007), p.20.

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기업가정신 교육과정은 추가적인 역량 혹은 예술경영자가 되고픈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역량이 아니라, 무용예술가로서 또는 무용계를 둘러싼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필수적 과목이다. 현재 국내 대학 무용과에서 전공자들의 기업가적, 전문가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되고 있는 교과목을 분석함으로써,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 현황 및 내용과 제한점을 살펴볼 것이다.

1. 무용과 교육과정 및 예술경영과목 선행연구

김소영과 한준영(2014)는 4년제 무용관련학과 38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학부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전공/학과별로 평균적으로 실기/실습 교과목은 35.7개의 과목(71.1%), 이론 교과목은 13.8개(28.9%)의 비율로 제공된다고 나타나, 무용실기에 편중된 교육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²⁵⁾ 이론 교과목을 개론, 역사, 미학, 비평, 과학, 무용예술, 음악 및 교육영역으로 분류하여 개설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공연기획/경영 과목은 무대미술, 무대연출/제작, 무대조명, 무용의상, 분장법과 함께 무용예술로 분류되었다. 전체 대학의 43.2%에서만 공연기획/경영 과목이 무용과 내 교과목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나, 무용전공자를 위한 기획경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전선영의 연구 「무용계 활성화를 위한 예술경영교육도입 방안연구」(2012)는 국내 2년제, 4년제를 포함한 47개 대학교의 무용학과에 개설된 예술경영과목을 조사하였다.²⁶⁾ 그 결과, 조사대상 대학교 중 10개의 학교에서만 예술경영과 그와 유사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전선영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무용원 이론과 예술경영전공까지 포함하여 10개의 무용과에서 예술경영 수업이 있다고 보았으나, 사실상 예술경영전공은 무용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는 전공이 아니며, 타 대학교의 예술경영학과와 같은 성격의 전공이라는 점에서 무용과로 분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제외한 9개의 학교를 나열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2012년도 무용과 내 예술경영 교과목²⁷⁾

학교명	교과목명(전공필수)	교과목명(전공선택)
경희대학교	×	공연예술 프로그램 개발, 예술경영, 문화예술정책, 예술홍보매체연구
국민대학교	×	무용공연기획 및 경영
대진대학교	×	무용경영
세종대학교	×	예술경영
수원대학교	×	공연예술 문화예술정책
순천향대학교	×	예술기획과 경영, 예술현장 인턴십, 예술행정과 법
전북대학교	×	공연예술분석
충남대학교	×	무용행정학
한성대학교	×	무용예술경영

25) 김소영, 한준영(2014), 대학 무용 전공 교과과정 구성 경향 탐색, 『한국무용과학회지』 31(3), pp.1-16.

26) 전선영(2012).

27) 앞의 글, p.12.

2012년 연구조사 당시,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대진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성대학교에서 예술경영관련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으며, 개설된 교과목명을 살펴보면 공연예술 프로그램 개발, 예술경영, 문화예술정책, 예술홍보매체연구, 무용공연 기획 및 경영, 무용경영, 예술경영, 공연예술/문화예술정책, 예술기획과 경영, 예술현장 인턴십, 예술행정과법, 공연예술분석, 무용행정학, 무용예술경영 등이 있다. 전선영은 경영관련과목이 개설된 학교는 일부에 그치며, 그마저도 전공 필수 과목이 아닌 전공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무용계에서 기획, 경영에서 종사하는 이들 중에서, 경영 지식을 습득한 인력이 아닌 실무, 현장 경험을 통해 익힌 인력이 대부분이었다는 점²⁸⁾에서 전문 경영교육을 받은 인재가 대학 교육에서부터 양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선영의 연구는 무용과 내 예술경영교과의 필요성 및 교과목 신설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무용전공자들이 전문예술경영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술경영교과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본 연구와 차이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무용과에 예술경영과목이 필요한 이유가 예술경영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무용전공자들이 무용계 현장에서 진출하여 예술가로서, 행정가로서, 경영자로서, 교육자로서 활동할 때,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가치 창출하고 수익을 얻기 위한 실무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본다. 즉, 예술 기업가정신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단순히 경영학 지식(경영, 기획, 행정, 재무, 회계, 법률)을 전달하는 교과목뿐 만이 아니라 무용작품 제작, 기획, 유통의 전반적 과정을 실습하는 과목 역시 경영 지식을 습득하는, 구체적으로는 예술 기업가정신을 키울 수 있는 교과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으로 현재 대학 무용과 내 예술 기업가정신 관련 교과목을 조사, 분석해보았다.

2. 무용과 내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분석

대학알리미에 표기된 무용과가 설립된 40개의 4년제 대학 중, 대학 구조조정으로 통폐합되어 더 이상 무용전공 신입생을 뽑지 않고 폐과될 예정인 대학과 홈페이지상 교육과정이 제시되지 않은 대학을 제외한, 36개 대학교의 무용과 학부과정 교과목을 살펴보았다.²⁹⁾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제공한 교육과정 일람표를 바탕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될 수 있다. 기업가적 역량의 기본인 문제 제기, 비판적 반영, 혁신적 사고, 협업 능력은 기존의 무용과에서 제공하는 안무워크숍, 공연실습, 현대공연예술의 흐름과 같은 실기 및 이론 교과목에서도 능력 계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본 연구는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업가적, 실무적 능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무용과의 교육과정은 교양필수(기초교양),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교양필수의 경우 전공과 상관없이 대학교 자체에서 지정한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 교양선택의 경우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교과목 중 선택하여 이수하는 과목,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경우, 무용전공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선택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을 지칭한다.

교과목 분류별로 살펴보면, 교양필수과목의 경우, 5곳에서 대학교에서 진로, 취업, 리더십과 관련한 수업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취업진로설계, 진로선택과 자기계발, 진로지도, 글로벌 직

28) 도혜영(2001), 공연예술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무용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9)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업탐구, 휴먼리더십, 글로벌리더십, 비즈니스리더십, 셀프리더십, 취업성공전략 등과 같은 과목은 모두 이론과목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저학년 교과목으로 선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양대 서울캠퍼스, 에리카캠퍼스의 경우, 학년별 직업, 진로 설계 관련 수업을 학년별로 설정하여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한양대 서울 캠퍼스 교양필수 과목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경영자 육성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1학년 재학생은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하여 인간에 대한 가치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익히는 ‘휴먼리더십’과목과 대학생활 시작하는 도움이 될 학습방법, 시간관리, 교육과정 이수 요령, 전공 및 직업 설계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커리어개발’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2학년 재학생은 글로벌 패러다임, 매너, 마인드를 배우는 ‘글로벌리더십’과목, 3학년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이해, 기업의 본질과 사회진출을 위한 준비, 경영마인드 확립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비즈니스리더십’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4학년은 미래 설계 능력, 시간관리, 매너,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전략, 팔로워십, 상상력과 창조력 함양에 더해, action plan을 수립하여 리더십 로드맵을 완성하는 ‘셀프리더십’교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경우, 취업성공전략이란 과목명 아래, 고학년 학생들의 사회진출 및 취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수업을 제공하면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 다양한 형태의 과제와 모의면접 등 컨설팅을 통해 취업률을 증진과 사회진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교양선택의 경우, 대학별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영 관련 수업이 제공되고 있어 무용전공자 학생들의 개인적 관심 여부에 따라 기본적 경영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예체능계열의 경우 기초교양(영어, 제2외국어)을 수강하면서, 핵심교양과목과 일반교양과목으로 나누어 교양선택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핵심교양과목은 5개의 영역(문학과 언어, 표현과 예술, 역사와 철학, 인간과 사회, 과학과 기술)과 5개 역량(인문적통찰역량, 과학·생태적사고역량, 심미적창조역량, 글로벌선도역량, 통합적탐구역량)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는데 이중 한 과목이 ‘경영과 사회’라는 명칭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회사 등 영리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조직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들 조직과 이를 둘러싼 사회와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인사/조직/전략, 생산, 마케팅, 회계, 재무 등 경영의 핵심요소들을 단계별로 나누어 탐구하는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일반교양과목에서는 경제학과에서 진행하는 ‘한국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세미나’, 경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핵심인재 리더십’, ‘현장실습인턴십’, ‘글로벌인턴십’, ‘취업전략설계’, ‘커리어탐색과역량개발’, ‘글로벌인턴십’, ‘핵심직무이해’, ‘산학협력인턴십’, ‘현장실습인턴십’ 등이 개설되어 있다. 강원대학교 무용과의 경우, 기초교양(글쓰기와 말하기, 영어), 균형교양(역사와 철학, 사회와 문화, 과학과 기술, 수리적 사고, 예술과 건강 중 2개 분야 선택), 특화교양(융복합, 미래준비)과 더불어, 문화예술대학에서 진행하는 대학교양이라는 교양수업은 ‘예술경영’, ‘예술철학’, ‘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해’세 가지 교과목이 개설되어 예술전공학생이면 이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게 된다.

〈표 2〉 2015년도 무용과 내 예술 기업가정신 관련 교과목

학교명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강원대학교	×	○	×	×
경상대학교	×	○	×	춤제작기획실습(실습)
경성대학교	취업진로설계(이론)	○	×	기획제작및시연(이론)

경희대학교	×	○	×	기획제작및시연(이론), 문화행사기획(이론), 현장연수활동(실습)
계명대학교	×	○	취창업과 자기계발	무용기획경영론(강의), 무용학프로젝트(실습), 학기인턴십(실습), 무용창업현장실습(실습)
공주대학교	×	○	×	기획 제작 및 시연 (이론/실습)
광주여자대학교	×	○	×	×
국민대학교	×	○	×	무용공연기획및경영
단국대학교	×	○	×	산업체현장실습, 창업지도자워크샵, 국외인턴십, 국내인턴십
대구예술대학교	×	○	×	×
대구카톨릭 대학교	×	○	×	공연무용취업특강(실습)
동덕여자대학교	×	○	×	×
디지털서울 문화예술대학교	×	○	×	예술경영
상명대학교	×	○	×	×
서경대학교	진로선택과 자기계발(이론)	○	×	무용공연기획 및 제작(이론), 무용학원경영(이론)
서울기독대학교	×	○	×	무용현장실무론
성신여자대학교	×	○	×	×
숙명여자대학교	×	○	×	×
순천향대학교	×	○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인턴십
신라대학교	진로지도(이론), 글로벌 직업탐구(이론)	○	×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의 이해(이론)
영남대학교	취업설계	○	기획 제작 및 시연, 공연예술행정의 이해	×
예원예술 대학교	×	○	×	×
용인대학교	×	○	×	공연무용기획및제작 (이론/실습)
우석대학교	×	○	×	공연제작실습(실습), 퍼포밍 기획 제작 및 시연(실습)
이화여자대학교	×	○	×	무용인턴십
전북대학교	×	○	×	문화예술기획, 커뮤니케이션기법

조선대학교	×	○	×	기획 제작 및 시연
중앙대학교	×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창원대학교	×	○	무용행정학(이론)	무용경영학(이론)
충남대학교	×	○	×	무용 기획 및 홍보 미래설계상담
한국예술 종합학교	×	○	무용제작(이론) 공연예술현장체험 (이론)	무용기획경영론(이론), 해외인턴십, 문화정책 및 예술교육의 이해 (이론), 문화행사기획(이론), 커뮤니케이션기법(이론)
한국체육대학교	×	○	×	공연기획(이론)
한성대학교	×	○	×	인턴십, 기획 제작 및 시연
한양대학교 (서울)	커리어개발(이론) 휴먼리더십(이론) 글로벌리더십(이론) 비즈니스리더십 (이론) 커리어개발(이론) 셀프리더십(이론)	○	무용진로특강 (이론)	인턴십과정(실습), 전공현장실습(실습)
한양대학교 (에리카)	대학생활과 비전설계(이론) 진로탐색과 진로설계(이론) 진로설계와 역량개발(이론) 취업성공전략(이론)	○	×	기획 제작 및 시연(실습)

무용과 내 전공필수 교과목을 살펴보면, 전선영의 연구에서 무용과 전공필수로 지정된 예술경영 과목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던 반면, 현재 몇몇의 대학교에서 무용전공자를 위한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명대학교의 ‘취창업과 자기개발’, 순천향대학교의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영남대학교의 ‘기획 제작 및 시연’, 공연예술행정의 이해’, 창원대학교의 ‘무용행정학’,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의 ‘무용진로특강’ 등이 개설되어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의 경우, 창작과 전공 학생들은 ‘무용제작’과 ‘공연예술현장체험’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되어 있다(실기전공, 이론전공 학생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무용제작’은 무용공연의 기획에서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과정, 제작을 위한 자원조성, 무용공연작품의 국내외 유통, 무용단체 운영을 위한 행정, 공공 지원금 신청 및 평가 성과보고에 대한 이해 및 실무와 함께 인터뷰 및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습득하는 과목으로, 이론강의로 진행된다. 무용제작의 경우, 타대학교에서 유사한 과목명으로 개설되어서, 작품준비에 필요한 대본 및 음악, 안무과정, 의상 무대장치, 조명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매학기 실시하는 창작 발표회, 정기 공연, 졸업발표회에 대비하는 수업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무용제작 과목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창작과정 만이 아니라, 기획 제작, 자원조성, 단체운영, 공공지원금 신청 및 성과 보고 등과 같은 창작품을 전반을 둘러싼 시장 구조를 이해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띤다. ‘공연예술현장체험’의 경우, 공연예술 현장, 변화하는 문화예술 현상, 공연예술의 새로운 경향 및 문화

예술 정책, 무용작품 유통 및 국제교류에 대한 이해 도모를 목표로 하는 교과목으로, 마찬가지로 이론 강의 중심으로 교육되고 있다.

전공선택 교과목의 경우, 36개의 대학교 중 9개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에서 예술 기업가정신 능력 함양을 위한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개설된 교과목은 ‘국내외 인턴십’과정으로, 졸업 전 공연예술 관련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통해 실질적 현장을 이해하고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적성과 재능을 파악하여 졸업 후 진로 모색 및 사회진출을 위한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계명대학교에서 개설된 ‘무용기획경영론’의 경우, 경영전공자가 아닌 무용전공자가 무용공연을 기획하고 제작,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로 기획을 해보면서 토론과 발표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본다. 일반 기획이 아닌 무용기획에서 염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수업으로 무용전공자가 예술가이자 기획자, 경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목표로 설정하였다. 최근 무용전공자의 취창업 관련 과목이 많이 개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명대학교의 ‘무용창업현장실습’, 단국대학교의 ‘창업지도자워크숍’, 대구카톨릭대학교의 ‘공연무용취업특강’, 서경대학교의 ‘무용학원경영’ 등과 같은 과목은 취창업 사례조사 및 취창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요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졸업 후 현장으로의 진출을 돕는다.

위의 무용과 교과목 현황 조사결과에 살펴보면, 2012년 전선영 연구와 비교했을 때, 무용전공자가 교육과정 속에서 교양과목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무용과 내 필수, 선택과목의 하나로서 경영학 또는 기업가정신 관련 수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 진로, 리더십 관련 교양 필수과목 설치 및 무용과 학생들의 기획자, 경영자로서 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은 대학교의 구조적 차원과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제도적 차원과 같은 두 가지의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고등교육 질 향상을 목표로 2011년 8월부터 시작한 대학교구조개혁사업의 영향으로 취업률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 대학교 차원과 전공학과 차원에서 경영적 지식, 마인드 강화 및 취창업, 진로 모색을 구체화할 수 있는 교과목을 대거 신설한 것으로 파악된다. 취업률을 지표로 한 비민주적 구조조정 및 원칙과 비전없는 학과 간 통폐합 추진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이러한 정책적 흐름은 무용전공자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고민과 전공 실력과 더불어 현장에서 필요한 경영학적 지식과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무용계 현장의 구조와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쟁력이 없는 획일화된 무용전공자를 대량 양산하고 제한된 진로 방향과 직업 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199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지적되어온 대학무용교육의 문제점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등교육 내 무용전공자의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이 단순히 무용전공자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또는 창업을 유도하는 식이 아니라, 무용전공자들이 현장에서 자생력을 갖춘 예술 전문 인력으로 양성되도록, 더 나아가 전공지식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로의 사회 진출 및 무용수 은퇴 후 직업 전향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교육으로서 발전 가능성을 지닌다.

둘째로는 2013년 2월부터 시행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로 인해 예술전공 학부과정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한 교과목들이 많은 대학교에서 개설되었다. 위에 조사된 무용과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과목명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개설되었는데, ‘기획, 제작 및 시연’,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문화행사기획’, ‘커뮤니케이션 기법’과 같은 교과목이 여기에 속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

격제도는 문화예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전문 인력 배출 및 이에 따른 사회적 인식 수준 제고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무용과 혹은 예술대학 내에서 교수역량, 직무소양, 예술전문성과 같은 세 가지 영역에 속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이수과목을 개설하여 2급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교수역량 영역에 속하는 ‘기획, 제작 및 시연’은 전공 예술분야에 맞는 일정 유형의 시연을 위해 기획 및 제작 하는데 필요한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흐름과 범주를 파악하고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는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계획, 설계, 기획, 전략, 홍보에 직접 참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행사기획’, 개인 간 집단 간의 의사소통 및 유대감 형성, 정보교류 능력을 키우는 ‘커뮤니케이션기법’과 같은 수업은 직무소양 영역에 속하는 과목으로 개설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자 양성을 목표로 하지만, 교육자로서 자질 뿐만 아니라 실무를 수행하고 소통하고 제작하고 정책적 상황을 이해를 도모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교육자를 목표로 하는 무용전공자 뿐만 아니라 예술가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직업적 역량 강화 및 협업, 기획, 경영적 마인드를 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과목이라고 볼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무용전공자는 상대적으로 빠른 은퇴시기로 인한 직업 전환 및 직업 개발 필요성, 다수의 무용가들이 독립예술가, 1인 기업,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면서 창작활동 외 기획, 유통, 수익 창출까지 구상해야 하는 현실, 순수예술가 위주의 제한적 진로 방향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무용전공자들이 예술가로서 살아가기 위한 자생력 강화뿐만 아니라 전통적 개념의 예술가로서 삶 이외에 다양한 분야로의 분야 진출 혹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게끔 하는 역량을 훈련, 개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예술 기업가정신 관련 교과목은 전문예술경영자를 꿈꾸는 학생이 부수적, 선택적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이 아닌 무용과 내 필수적 교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때 대학교 무용과 내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은 베크만이 설명했듯이, 단순히 경영학적 지식을 습득하여 사업을 구축하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즈니스형 모델이 아니라, 무용계 현장의 경제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경영적 지식, 정신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경험하는 맥락형 모델로서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무용과의 예술 기업가정신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 36개 대학교 중 모든 무용과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일반 경영학적 지식 및 직무 소양 능력 계발을 위한 교양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무용전공학과 내에서도 전체 대학의 75%가 무용전공자를 위한 기업가정신 관련 교과목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술 전공자의 기업가적 마인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고 있는 현상은 사실 무용계에서의 예술가로서 자생력 향상과 다각적 진로 방향 모색을 위한 인식 변화 및 노력의 결과라기 보단 정책적 변화에 따른 수용의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따른 경영학 및 진로 모색 관련 교과목 개설과 동시에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현장, 정책, 관리, 실무, 기획, 운영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과목 신설은 근본적으로 예술가의 기획, 경영, 협업, 소통 능력 함양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예술 기업가정신을 키울 수 있는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순히 대학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 또는 자격증 이수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무용전공자들의 다차원화된 직업적 역량을 키우고, 사회 진출 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업능력, 창조력과 상상력, 문제해결 및 대처 능력, 네트워킹 및 소통 능력, 재정관리 능력 등과 같은 역량, 즉 예술 기업가정신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기에는 현재 무용과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무용전공자들이 교양필수 또는 교양선택으로 이수하게 되는 기업가정신관련수업은 경영학의 지식을 그대로 전달하는 식의 방식으로, 무용계 현장의 문화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베크만이 지적했듯이, 맥락형 교육과정이 아닌 비즈니스형 교육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차원적 교육 효과를 내기 어렵다. 둘째, 총 36개의 대학교 중 6개의 대학의 무용과에서만 예술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무용전공교육에 있어서 경영학적 지식 및 마인드 함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인턴십을 포함한 몇몇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과목의 대부분이 이론 강의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제 현장과의 연계성 부족 및 실무 능력 개발 기회 저조를 지적할 수 있다. 인턴십 과정의 경우에도 학과 차원에서 학생들이 실무 경험과 진로 모색에 도움을 될 수 있는 단체 및 기관과의 연결, 학생과 현장 담당자와의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인턴십 과정 관리, 인턴십 과정후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교과목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무용전공자에게 기업가적 마인드와 경영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아직 국내 무용계, 대학무용 교육에서 생소한 시각이다. 여전히 경제적 사고와 가치에 대한 고려는 예술적, 미적 가치의 타락과 연결되어 생각되고 예술가의 직업적, 노동력 개념을 경제적 논리와 무관하게 여기는 무용계의 보편적 인식은 무용전공자들의 기업가정신 교육의 필요성에 심한 반발을 야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순히 경영학 논리에 의해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용전공자가 현장에서의 실무적, 경제적, 문화적, 정책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 진출 가능성을 개척해나가는 능력을 배운다는 의미로서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은 예술가의 일자리 모색을 위한 보다 근본적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술 기업가정신 교육을 이행하기 위해, 기존의 대학 무용교육에서 경영적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며, 교육과정이 어떻게 고안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교육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 전문무용수지원센터(2013). 「전문무용수 실태조사」. 서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황준욱(2005). 「무용 전문인력 형성구조 분석과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문화관광부.
- Aggestam, Maria(2007). Art-Entrepreneurship in the Scandinavian Music Industry. In C. Henry (ed.), *Entrepreneurship in the Creative Industrie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 Audretsch, D. B. and R. Thurik(2001). *Linking Entrepreneurship to Growth*. STI Working Papers 2001/2. Paris: OECD.
- Brown, Ralph(2004). *Performing Arts Entrepreneurship*. Lancaster: PALATINE.
- Burns, Susan(2007). *Mapping Dance Entrepreneurship and Professional Practice in Dance Higher Education*. Lancaster: PALATINE.
- de Bruin, Anne(2007). Building the film industry in New Zealand: an entrepreneurship continuum. In C. Henry (ed.), *Entrepreneurship in the Creative Industrie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 Kamara, Yarri(2005). *Key to successful cultural enterprise development in developing countries*. Paper prepared for The 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 Division of Arts and Cultural Enterprise. Paris: UNESCO.
- 강소정(2012). 국내 대학 예술경영 교육 현황 연구: 무용학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도혜영(2001). 공연예술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무용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송혁규(2014). 국내 예술경영학 분야의 학부 및 석사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선영(2012). 무용계 활성화를 위한 예술경영교육도입 방안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조영인(2012). 융합적 무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대학 무용학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차화숙(2012). 정부정책과 대학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식에 미치는 영향: 공예분야를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구문모, 이현숙(2012). 공연예술 기업의 지적 자본, 기업가적 지향성과 기업 성과의 관계. 『문화정책논총』, 26(1): 6-29.
- 김소영, 한준영(2014). 대학 무용 전공 교과과정 구성 경향 탐색. 『한국무용과학회지』, 31(3): 1-16.
- 김혜인(2013). 문화예술 기획인력의 개념과 인력양성 활성화 방안: 시각예술분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8(4): 23-45.
- 박신의(2011). 문화기업가정신의 역사와 현재.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학술대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13-33.
- 이병준(2005). 문화예술교육 기획전문인력의 직업적 전문성 연구: 직무분석을 중심으로. 『예술경영

연구』, 8: 21-48.

최윤선(2012). 시장중심 무용학과 교과과정 모형 개발 제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 254-264.

Beckman, Gary D.(2007). "Adventuring" Arts Entrepreneurship Curricula in Higher Education: An Examination of Present Efforts, Obstacles, and Best Practices. *The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37(2): 87-112.

Roberts, Joseph S.(2013), Infusing Entrepreneurship within Non-Business Disciplines: Preparing Artists and Others for Self-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Artivate: A Journal of Entrepreneurship in the Arts*, 1(2): 53-63.

대학알리미. 대학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academyinfo.go.kr/>, 2015.4.15>.

논문투고일	2015.	8.	15
심사일	2015.	8.	20
심사완료일	2015.	8.	28

A Study on Arts Entrepreneurship Curricula in Dance Departments in South Korea

Na, Kyung-Ah* · Han, Seok Jin**

Professor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 Lecturer of Seoul Institute of the Arts**

Dance graduates are more likely to become self-employed or undertake freelance work. Therefore, they need to understand the market and to develop necessary management and organization skills for planning, fundraising, application writing, promoting and touring. Also, professional dancers face relatively short performance careers due to the intense physical demand and may have to prepare for career transition and to develop a second career. Reflecting upon the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within the dance world and dancers' career, this paper argues that dance departments in higher education have to provide entrepreneurship curricula for dance students who need to improve not only abilities to perform and choreograph but also entrepreneurial skills for a successful and sustainable career in the sector. This research analyzes current curricula of most dance departments in Korea, focusing on what their entrepreneurship-related programs consist of and how they run the programs.

Keywords: Higher education(고등교육), Dance departments(무용과), Arts entrepreneurship(예술 기업가정신), Arts management(예술경영), Curricula(교육과정)